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4. 봄호

172

사단
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4년 봄호 통권 172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중기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도희 박지원 정다솜(내부) 김보영 김현지 이가영 이지혜(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펴내면서

매해 소식지 봄호를 펴내는 마음은 늘 새롭습니다. 봄호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호이자 한 해의 주제를 담고 처음 발간하는 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새로움이 지겨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해의 눈과 귀, 마음과 발걸음으로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고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아 설립의 목적을

되새기고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계속 외치는 이유입니다.

2024년 소식지에서는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중심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과 25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민주공원의 역사를 풀어내봅니다. 또 민주공원이 자리한 산복도로, 원도심 일대와 얽힌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개관 25주년을 맞은 민주공원을 이끌어 갈 10대 민주공원 관장으로 취임한 이동일 관장의 포부도 전해드립니다. 특히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을 모아 소식지에 소개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펼치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도 안내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민주공원 장승터에 다시 세울 장승을 시민들과 함께 제작하려고 합니다. 장승은 물론 소원을 담은 소원지와 바람개비도 만들 수 있고 장승과 함께 부산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킬 송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봄에 올해의 새로운 마음과 기대, 염원을 담아 봄호를 펴냅니다. 🌸

우리가 배를 들며 아아 이름은
그림본의가 담담 들었지 아아 하고
창생도 단애서 전지고
극가를 반석해 두고 자왕이라
안을 들을 한판의 미디로 듣고
밖은 강을 반 뒤의 리를 뜻하
니 물은 차한 이다
상반부동 미세고 들을 들었는
민중은과 자반해 면해서
군중은 다 되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깊은 차다

조금도
주저말고
시상으로 열여섯
만일 기쁨을 할은
추정하여도 다시
무참하다.

— 사당문화보존회거나 백산의 개물은
배양시 말기이다.
— 조류공포물 무는 원하마상을 추구하고
백산은 원상할 것이다.
— 왜적과 용케를 모아 내고
나라의 기쁨을 만일 할 것이다.
— 군상을 일으켜 할을 짓기 하여
권력을 들을 만 것이다.
— 조류공포물 무는 원하마상을 추구하고
백산은 원상할 것이다.



목 차

- 04 **4대항쟁** 제64주년 4·19혁명 기념행사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
영화 '건국전쟁'으로 표상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_ 김선미
- 10 **회원과 함께** 감사한 회원님께 _ 김도희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 12 **민주공원**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아 _ 김예선
2024 민주공원 관장 이취임식
이동일 관장 인터뷰 _ 김예선
부산 사람의 DNA와 산동네 _ 차철욱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① 중앙공원 _ 김예선
제11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 28 **더: 나은**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_ 문병학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 202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세월호참사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 – <다시 피는 꽃으로 - 열 번째 봄> _ 황종모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제64주년 4·19혁명 기념행사

제64주년 4·19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

제64주년 4·19혁명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4·19혁명 희생자 영령 봉안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이 주최하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4·19혁명 희생자유족회와 공동 주관합니다. 이재동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 지부장이 추모위

령 제문을 낭독하고 헌주, 재배를 했습니다. 각근 수 4·19민주혁명회 부산광역시 지부장, 전종호 부산지방보훈처장, 이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성중훈 부산시 총무과장, 4·19혁명희생자 유가족이 이어 헌주와 재배를 했습니다. 4·19혁명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무를 부산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이수자인 김경미 선생이 쳤습니다.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4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4·19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4·19혁명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故 김용성 4.19민주혁명회 부산지부장의 뜻을 기리며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추모공연과 부산시립합창단의 추모합창에 이어 다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폐식했습니다. 🇸🇰



제44주년 5·18민중항쟁 부산기념식과
민주주의 다시 세우기 장승 맞이 한마당
장승 맞이 한마당 5월 18일(토) 17:30, 민주공원 장승터
기념식 5월 18일(토) 18:30, 민주공원 중극장

민주주의 소도 거닐기

–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염원 장승
5월 19일 ~ 6월 8일, 민주공원 장승터
장승 제작 체험, 소원지 쓰기, 바람개비 만들기

부산 민주길 탐방

5월 18일(토), 6월 8일(토), 부산지역 민주항쟁 관련지 일대
신청 : <https://naver.me/xzn82CnV>

6월민주항쟁 37주년 특별 기획공연 :
꽃다지 콘서트 “당부”
6월 7일(금) 19:30, 민주공원 중극장

제37주년 6월민주항쟁 부산기념식
6월 8일(토) 16:00, 민주공원 낮기림마당

민주주의 다시세우기 장승문화한마당
6월 8일(토) 17:00, 민주공원 장승터
시민들과 함께 제작한 장승 세우기와 문화한마당

제37주년 6월민주항쟁 기념 학술심포지엄
[SI시대, 민주주의와 만날 준비]
6월 20일(목) 13:00
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광장) 104호

민중미술 2024 :
동학농민 130주년 기념 기획전시
6월 7일(금) ~ 7월 21일(일)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
개전행사 : 6월 7일(금) 15:00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

2024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를 기조로 5·18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 기념·계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주권과 생존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다시 세우는 계기 만들거자 합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부산 민주주의행동 “오월에서 유월로” 추진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월에서 유월로”는 부산민주공원 장승터에 새 장승을 맞이하여 세우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누운 장승을 맞이하고(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염원을 기리며(장승제작 시민참여 프로그램), 장승 세우기(6월민주항쟁 기념식)까지 이어지는 민주주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민중의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민중의 승리로 이어진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각 프로그램의 일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민주공원 홈페이지와 SNS, 오월에서 유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영화 ‘건국전쟁’으로 표상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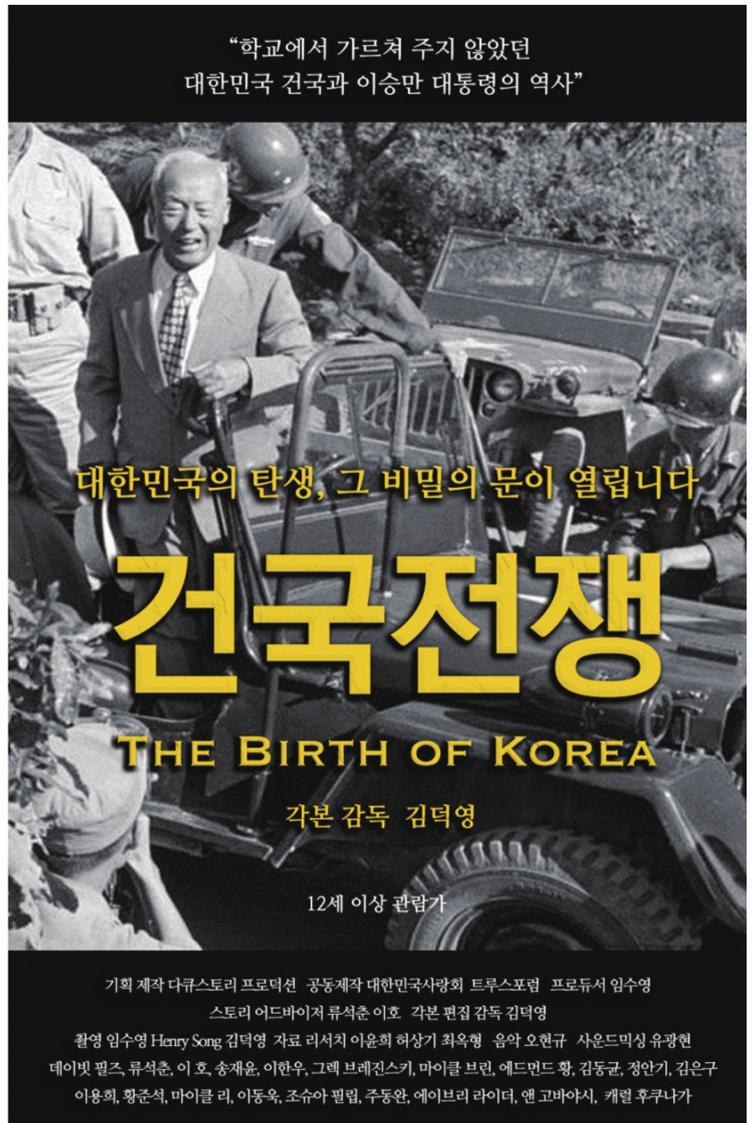
김선미 |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17만을 넘겼다. 건국절과 국정 국사교과서가 물의를 빚으며 여론의 외면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뉴라이트 진영으로서는 큰 성과로 여길 듯하다. 관람 동원과 관람료 돌려주기 등이 구설에 오르긴 했지만, 제작자와 지지자들은 고무된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 영화로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인식이 밀천을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영화가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한국 현대사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못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겠다. 그것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에 이승만의 책임이 없다는, 이승만은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말인즉, 이승만의 대항마로 나선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3·15선거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정선거의 책임은 이기붕에게 있다는 것이다.

첫째 사실 관계를 말하자면, 이승만의 연로함이야말로 바로 3·15 부정선



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승만은 1875년생으로, 1960년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 86세였다. 당연히 임기 중 유고 사태의 우려가 컸는데, 이 경우 권한대행을 맡을 부통령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적이 부통령에 당선되어 유사시에 권한을 승계하는 구도는, 이승만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유당 정권의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둘째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선거 부정을 몰랐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3·15선거는 내각과 자유당, 경찰과 공무원 및 반공단체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및 각종 사조직을 총동원한,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40%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교사들의 불법적 선거운동 등 광범한 부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필자는 사전투표를 목격한 부산고 학생, 선거운동에 동원된 남성여고 교사의 구술 증언을 수집한 바

있다. 3인조·9인조 공개투표는 외신에 목격담이 전해진다. “무슨 일입니까?”라는 미국인의 물음에, “우린 선거에 대비해 연습을 하고 있어요.”라는 천연덕스런 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필자 역시 3인조 공개투표의 조장 역할을 했던 부친의 사례를, 동래고 학생의 구술 증언으로 수집한 바 있다.

선거 이전에 자행한 야당 정치인 테러, 학생들의 공명선거운동 탄압, 개표과정의 폭력 등을 빼더라도, 실로 어마어마한 선거부정을 저질렀던 것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주권자의 의지가 실현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선거부정을 알지 못했거나 방치했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역량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공화정의 정무직 공무원일 뿐이므로,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탄핵되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몰랐다? 이승만의 무능함을 보여주기에는, 이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4·19혁명의 성년 민심이, 남산 위의 이승만 흉상을 끌어내려 깨부수고 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 표상된 '이승만 국부 만들기'의 중심에 선 뉴라이트는, 20세기 말 공산권의 몰락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실용적인 노선으로 좌·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전통적 우익과 차별화된 '뉴'라이트 즉 '신'우익을 표방하고 나섰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극단적 이념 대립을 넘어섰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말하자면, 이야말로 전통적 우익의 주장이었다. 이상주의 대신 현실적 실용성이야말로, 보수 우익이 스스로 내세우는, 진보세력에 대한 경쟁력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뉴라이트란 본질적 변화라기보다는,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단장을 새롭게 한 정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새로운 것이 있긴 하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우익의 뿌리는 김성수와 송진우가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다. 그런데 한민당은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으니, 이 점에서 신·구 우익에 차이가 있긴 하다. 한데 이승만이 한민당보다 더 실용적이고 덜 퇴행적이라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한 4·19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바로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당일진데, 이들이 이승만을 축출한 것을 신우익은 어떻게 설명할까? 한민당과 민주당은 이승만을 오해한 건가? 이들이 이승만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나? 전통 우익이 국부 이승만을 축출한 데 대한 신우익의 입장은 무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승만과 더불어 뉴라이트가 추앙하는 또 한 사람, 박정희는 또 어떠한가. '이승만 지우기'에 가장 열심 이었고,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은 바로 박정희였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에 성공한 뒤 4·19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이승만을 몰아낸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 부신했다. 전국에 산재한 4·19혁명 관련 조형물은 대부분 박정희 정권이 세운 것이고, 내무부장관(최인규)에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사형시킴으로써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정치적 법리적으로 매장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의 '혁명재판'이었다. 최초로 헌법 전문에 4·19를 수록한 것도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었다. 이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4·19를 삭제한 것보다도 대비된다.

그런 만큼 박정희는 이승만과 자신을 차별화하느라, 누구보다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승만 정권은 '세계 선거 역사 가운데 예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부정과 불법의 흥계를 꾸미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했고, 그 아래서 자유란 '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권의 형태를 띠었다고 직격했다. 심지어 '이승만 노인은 눈이 어두운 독재자'라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전통 우익과 다르지 않은 것도 있다. 일제와 친일파에 대한 입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점에서 뉴라이트는 훨씬 적극적이다. 8·15 직후의 서슬 퍼런 국민 정서 탓에, 일제 침략은 옹호할 수 없는 것으로, 친일 행위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감히! 정당성을 주장하진 못했던 전통 우익과 달리, 뉴라이트는 과감한 주장을 폈다.

일제의 지배는 후진적인 조선 사회를 성장시켜 한국 자본주의에 기반을 제공했고, 친일파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열심히 노력한 진취적인 존재라는 주장이다.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 여성으로 인권유린이란 과대 포장된 것이라 매도하고, 독립운동은 독립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 폄하하고, 반일 의식은 좌파적 사고라고 비난한다. 이쯤 되면, 식민지시대가 계속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물론 세상 모두의 견해가 같을 순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소중하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익과 존엄을 훼손하는 주장과 행동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학문과 표현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합리적 상식을 공유하는 사회라면,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파



김순딕, '꽃' 1995

시즘과 나치즘을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 침략을 공공연히 정당화'하거나 한국현대사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등의 非 자주적 反인권적 주장과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므로, 22대 국회에서 그 과정이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이로써 과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인권과 공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감사한 회원님께



시민·회원사업 담당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 계절 소식지를 발송드리면서 회원님은 어떤 분일까 모습을 그려봅니다.

사업회의 기념행사로 맺어진 인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참 소중한 귀한 인연입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사업회도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회 창립 35주년,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함께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더 다양한 혜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2024년 회원 혜택 •

- ✔ (사)부산민주항쟁사업회와 민주공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식과 행사를 우선적으로 전달해드려요.
- ✔ 월 1회 사업회에서 소장중인 민중미술 작품을 소개해 민중미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깊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 ✔ 회원을 대상으로 한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진행 시 별도 알림 예정)
- ✔ 월 1회 뉴스레터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별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발송해드려요.
- ✔ 민주공원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를 할인된 가격에 관람하실 수 있어요.(일부 공연,전시)
- ✔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 051-790-7473

민주공원과 함께하는 추억을 나눠주세요!



QR코드 간편 신청하기

기간	2024.04.22(월)~9.30(월)
대상	민주공원에 추억이 담긴 누구나
접수	네이버폼,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결과	2024. 6월 ~ 12월 중 수시 발표
시상	50명 내외, 모바일 음료교환권 발송
문의	051-790-7473(시민·회원사업담당)

1. 사진, 이야기 신청은 각 분야별 1인당 3건 이하로 가능합니다.
2. 방문 접수 시 인화 사진은 민주공원에서 스캔 접수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안내문 및 신청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아

김예선 | 편집장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저는 소식지 『민주공원』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홍보 담당 김예선입니다. 지면을 빌려 특별히 인사드리는 것은 2024년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소식지에 실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공원에서 주관한 '전국청소년예술토론회'에 참가하며 민주공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민주주의를 몸소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시공간이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저의 모든 여름을 민주공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계절을 민주공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의 역사는 민주공원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민주공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 민주공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에 녹아있는 가치, 사업을 통해 이뤄진 사람과 사람의 연결, 영주동 산복도로에 위치한 민주공원의 일상... 이 모든 것이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2024년 발행하는 소식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내어 펼쳐보고자 합니다. 민주공원이 있는 원도심, 산복도로의 역사와 이곳에서의 민주공원의 역할도 살펴보고 인근 기관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주공원의 다양한 사업을 되돌아보고 민주공원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도 찾아뵙고자 합니다. 10기 민주공원 관장으로 취임한 이동일 관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을 곱씹어보는 과거 사진 이벤트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11쪽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확인해주세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시민의 열린 공간 민주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데 저를 포함한 모든 민주공원 일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민주공원을 보다 민주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

민주공원의 개관하기까지

- 1995. 0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탑,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결의함
- 1995. 08~12 부산시장을 면담해서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할애 요청
- 1996. 01~0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를 구성키로 함
- 1996. 07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추진위원장: 부산광역시장 문정수



설종보_민주공원 전경

- 집행위원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 추진위원회: 각계 인사 및 항쟁 관련자 등 428명으로 구성

- 1996. 12 부산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997. 04 부산민주공원 설계 경기 공모
- 1997. 10 기공식과 공사 시작
- 1998. 06 '부산민주공원 개관 준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 1998. 12 전시실, 운영 프로그램, 각종 용도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 발주
- 1999. 03 민주공원 운영과 관련한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사회단체 대상 공청회 개최
- 1996. 10. 16. 민주공원 개관 기념 행사
- 1999. 1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 간의 민주공원 운영 위탁 계약 체결





2024 민주공원 관장 이취임식

2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2024 민주공원 관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동일 10대 관장은 지난해 민주공원에서 연 〈6월의 열사, 민주공원에 오다〉에 전시되었던 유품 중 박종철 열사가 추운 겨울 선배에게 건네준 머플러에 얽힌 이야기를 하며 “민주공원은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이자 누구나 들고나는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었습니다. ‘민주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교육장!’ 이것이 민주공원의 첫 마음입니다. 그리고 민주희생정신이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성이 아닐까 합니다. 박종철 열사의 최후는 그 헌신성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주의 독재세력을 물리치고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했던 민주화운동. 그 운동의 기초이자 상징인 헌신성! 개인과 가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 정신을 훼손하는 변절의 역사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주희생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새 전망을 밝히는 곳! 고귀한 가치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하는 시민의 쉼터이자 놀이터로서 민주공원은 더 전진해야 합니다.”라며 민주공원의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민주공원 건립 25주년과 10기 민주공원의 시작, 부속건물 건립을 앞두고 “역대 관장과 상근 활동가들이 성장시켜 온 민주공원이 부속건물 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려 합니다.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곳,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민주공원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한 꿈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길에서 민주공원 관장과 활동가들은 시민의 일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 취임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중기 9대 관장은 “민주주의는 사소하고 작은 것, 또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2018년부터 시작된 6년의 임기 동안 “민주공원의 문턱을 낮

2024 민주공원 관장 이취임식



추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즐기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힘을 모았다고 이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2024 민주공원 관장 이취임식의 사회는 이동일 신임 관장이 교육문화팀장 시절 민주공원 해설사로 연을 맺은 박경연 회원이 맡았으며, 막역한 친구이자 오랜 동지인 우동인 님이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동일 신임 관장의 발걸음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열사유족, 시민사회, 학계, 마을공동체 등에서도 신임 관장에게 바라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온새미풍물단과 헤아림컴퍼니의 힘찬 공연으로 이취임식을 열고 닫았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공원을 만들기 위해

— 이동일 민주공원 관장 인터뷰

김예선 | 편집장

2007년부터 민주공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근무한 민주공원의 10대 관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민주공원 관장이라는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고 소중한 자리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민주공원 건립을 추진한 때부터 하면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격이고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주공원이 앞서나가는 역할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느냐는 취임식에 오신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족은 물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틀을 잘 마련하고 보답해야겠습니다.

10기 민주공원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 민주공원을 개관했습니다. 교육, 문화, 연구, 자료관리 등의 모든 기능이 한곳에 모인 공간을 가진 기관은 민주공원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하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이할 만큼 시

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민주공원도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공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콘텐츠를 변화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식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민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말 민주공원 부속건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속건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은 말 그대로 화룡정점입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록을 잘 수집하고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양방향적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는 물론 미디어 콘텐츠 개발, 교육 자료 개발 등 다방면으로 자료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

떻게 발전할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민주공원 부속건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의 답을 품고 있는 부산시민 전체의 소중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민주공원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대중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속건물 건립을 계기로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공원 학술사료과장, 교육문화팀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2007년 학술사료과장으로 입사했을 때의 주요 업무가 기록관 건립 실무였는데, 당시 한 차례 무산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사무처장으로서 이 일을 다시 해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대중사업 측면에서는 '전국 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을 확장한 일을 꼽고 싶습니다. 주제강연회를 부산에서만 열지 않고 부산, 서울, 광주 순회하며 열고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청소년인문학 강좌 사업 역할을 한 셈입니다. 또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에 참여한 대학생, 청년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하늬'를 꾸려 지속성을 보장함은 물론 '사람이 남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늬뿐만 아니라 기획위원회, 심

사위원회, 지도교사 등 함께한 많은 분들 역시 지금까지도 민주공원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저희의 활동 부족으로 2021년 22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여 매우 이릅니다. 하지만 곧장 변화하는 시대 여건에 발맞추어 지난해부터 '청소년 민주주의 상상한마당'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민주공원』을 받아보시는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전세계적으로 근대 사회가 출현한 이후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이지 특정한 사회체제가 아닙니다. 독재의 시대에는 인권도 평등도 공정성도 복지도 공동체 의식도 없습니다.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를 부산에서 확장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회원분들과 독자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공원에도 자주 방문하셔서 추억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중적인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주공원에서 만드는 추억 속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계승해나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 사람의 DNA와 산동네

차철욱 | 부산대

부산 사람들에게 산동네는 태어나서 성장기를 보낸 고향 같은 곳이다.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곳. 이 공간이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통해 민주공원의 역할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난 도항노동자

이동하는 사람들

부산은 지리적으로 대륙과 바다의 경계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들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현장이었다. 단일문화 순수문화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지닌 가치를 높게 평가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여러 문화들의 충돌 현장인 부산을 ‘변방’이나 ‘쌍놈 마을’로 비하하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현장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부산의 역사에서 다양한 문화교류의 흔적은 선사시대 유적지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오래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은 최근 1~2세기 사이에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1876년 근대 개항, 20세기 전반기 근대 식민도시, 한국전쟁과 산업화 등은 부산 사람들의 집단 경험 구성에 크게 작용하였다.

개항은 일본에 의한 강제였고, 이로 인해 부산항은 조선 후기 초량왜관 시절 통제무역과 달리 자유무역이 보장되었다.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자본력 강한 일본 상인들과 경쟁 혹은 협력하면서 기회를 얻으려는 조선인들이 부산으로 이동하는 계기였다. 식민지시대에는 더 강력한 이동이 진행되었다. 식민지 농정으로 농촌경제가 붕괴되면서 식민도시 부산은 이주민들이 집중하

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일제 말 강제 징용자들도 부산의 한 공간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1944년 5월 현재 부산 인구는 327,215명이 되었다.

해방 후 부산항은 조선에서 살던 일본인이 돌아가고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의 귀환지였다. 귀환동포들은 전쟁 말기 전쟁의 공포와 일본인들의 차별, GHQ(연합군최고사령부)와 일본 정부의 추방정책으로 서둘러 귀국선을 탔다. 오갈 곳 없는 귀환동포 20만 명 정도가 부산항에 정착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상황은 귀환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한국전쟁기 부산항은 피란민의 안전망이었다. 이북 피란민을 비롯하여 중공군을 피해 남하한 화교, 흉년 든 농촌을 떠난 유랑민들이 부산항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부산에 정착하면서 부산 인구는 1955년 무렵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50년대 부산경제는 미국의 원조자금 지원으로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1950년대 말 과잉경쟁과 원조자금 축소로 침체되었다. 부산경제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와 경제개발정책의 혜택을 입으면서 섬유, 신발, 합판 등 경공업 중심으로 성장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들 산업의 특징인 값싼 저임금 노동력,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인구는 1972년 200만 명, 1973년 300만 명으로 불어났다.

근대 이후 부산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던 이주민들, 농촌을 떠난 유랑민, 귀환동포, 한국전쟁 피란민, 산업화시기 노동자 등은 값싼 노동력으로 부산경제를 키운 주역이 되었다.

삶터로서 산동네

다양한 이주민들이 지금의 부산을 만들었다. 이들은 낯선 땅 부산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기존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던 생각을 버려야 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남아야 했다. 도시는 농촌사회처럼 인간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부산살이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고향에서 받고 있던 전통적인 규율과 지배로부터 독립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불안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집중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근대도시 부산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 생계수단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거시설 마련이 주요 과제였다. 이주민들은 식민도시 부산에서 일본인 부동산 자본가의 투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 하천이나 해안가, 다리 밑에서 움집을 짓고 살아야 했다. 편히 살 수도 없었다. 행정당국은 움집을 '불량주택'으로 규정하고 시가지계획을 빌미로 이들을 산으로 쫓아버렸다. 영주정 산리, 곡정, 대신정 일대에서 산동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이 쫓겨 올라 온 산동네는 '전염병' 지대로 규정되고, 경찰당국의 감시대상이었다. 그리고 수시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산동네 주민들은 그냥 당하지만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지역민 집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진정하는 한편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세금 납부거부, 행정명령 무시로 대응하였다. 부산부회에 산동네의 생활환경개선을 요구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해방과 한국전쟁 때 부산에 들어온 이주민들도 주택난에 시달렸다. 일제강점기 30만 명에 맞춰 계획된 부산은 100만 명을 넘어선 이주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도심에서 삶을 구할 수 없었던 이주민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관저 맞은편 보수동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판잣집을 철거하라고 호통이었다. 이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판잣집은 수시로 강제 철거를 당했다. 하지만 절박했던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판잣집을 세우면서 행정력에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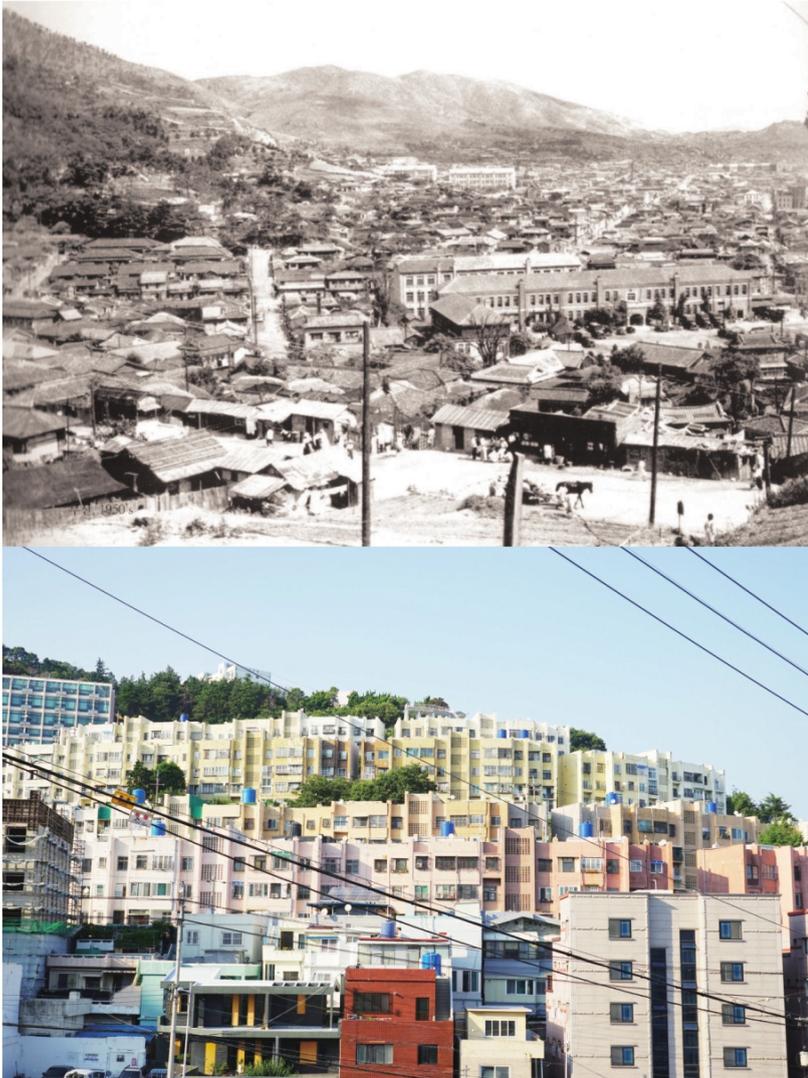


사진 위: 1950년대 영주동 일대
 사진 아래: 산동네 판잣집을 철거하고 건축한 영주동 시영아파트

산동네는 온갖 재난이 일어나는 공간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火災)가 발생했고, 산동네 판잣집이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면 축대 붕괴사고는 산동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1960, 70년대 산업화 시기 부산의 산동네는 무허가 주택으로 채워졌다. 부산시는 1967년부터 산동네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존의 판잣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시 외곽으로 이주시켰다. 1968년 영주동 주민을 동래구 서동으로 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동래구 반송동, 서구 장림동, 신평동에 산동네와 원도심 철거민 이주단지가 만들어졌다. 산동네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철거에 안정적인 이주지 확보와 위생시설 확보를 요구하면서 저항하였다.

이렇듯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산동네 주민들은 자신의 공간을 살터로 만들기 위해 권력 기관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여왔다.

생존투쟁에서 민주화운동

생존이 절박했던 이주민들에게 먹거리도 중요하였다. 오늘날 산동네에서 과거 부두노동자나 고무신 공장 혹은 섬유공장 노동자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산동네는 생활환경이 나빴으나 그나마 일자리와 가까운 게 위안이었다. 일제강점기 산동네 사람들은 매축현장이나 부두 혹은 시장통에서 지게꾼이나 막노동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였던 공장노동자는 공업화가 시작되는 192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공장과 부두에서 진행된 파업투쟁은 임금인상, 민족차별철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도시빈민으로 살던 조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자 식민지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독립투쟁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산업화시기 부산은 무역도시, 수산도시, 공업도시로 불려질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산동네 사람들의 직장이었던 부두와 섬

유공장, 조선공장, 선박, 운수회사, 고무공장 등에서 생존권투쟁은 수시로 발생하였다.

근대화 산업화시기 부산으로 모여든 이주민, 산동네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모색했던 자들은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는 권리투쟁을 주저하지 않았다. 고향의 전통적인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부산으로 이주한 여성노동자는 월급의 일부를 고향에 송금하고 동생 학비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가꾸는 데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기술을 익혀 보다 높은 지위로 위치이동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성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다.



광복동에서 진행된 부마민주항쟁

부산 사람의 생존권 투쟁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삶터와 생존권을 지키면서 성장한 의식은 이승만정권기에는 4월혁명으로, 박정희정권기에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신군부정권기에는 6월항쟁으로 표현되었다.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이동하는 이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자유와 독립이라는 DNA가 일상과 생존권 투쟁의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와 결합한 폭발이었다. 산동네 주민들의 역동성이 발현되었던 공간에 민주공원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이 우연일까.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① 중앙공원

김예선 | 편집장

민주공원 개관 25주년을 맞아 민주공원과 가까이 자리한 기관, 함께 성장해 온 사람을 찾아 소식지에 소개하는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은 구 대청공원 일대인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87 일원, 구 대신공원인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7-18일원(엄광산, 구봉산)입니다. 민주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공원에는 충훈탑, 조각동산, 4·19광장, 대한해협전승비, 산책로 등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겹벚꽃 군락지로 유명한 겹벚꽃 개화 시기에는 많은 상춘객이 찾습니다.

중앙공원에 우뚝 솟은 충훈탑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돌아가신 부산 출신 국군장병과 경찰관을 비롯한 애국전몰 용사들의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위령탑입니다. 탑은 8개의 연못 형태의 좌대와 9개의 열주 아래 반원형으로 된 영현실에는 9천 여 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1983년 9월 7일 건립했습니다.

부산 지역 작가들의 조각작품의 야외전시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예술화와 환경조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작품을 기증받아 1984년 조성된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조각공원 내에는 소해 장건상선생 동상, 최천택선생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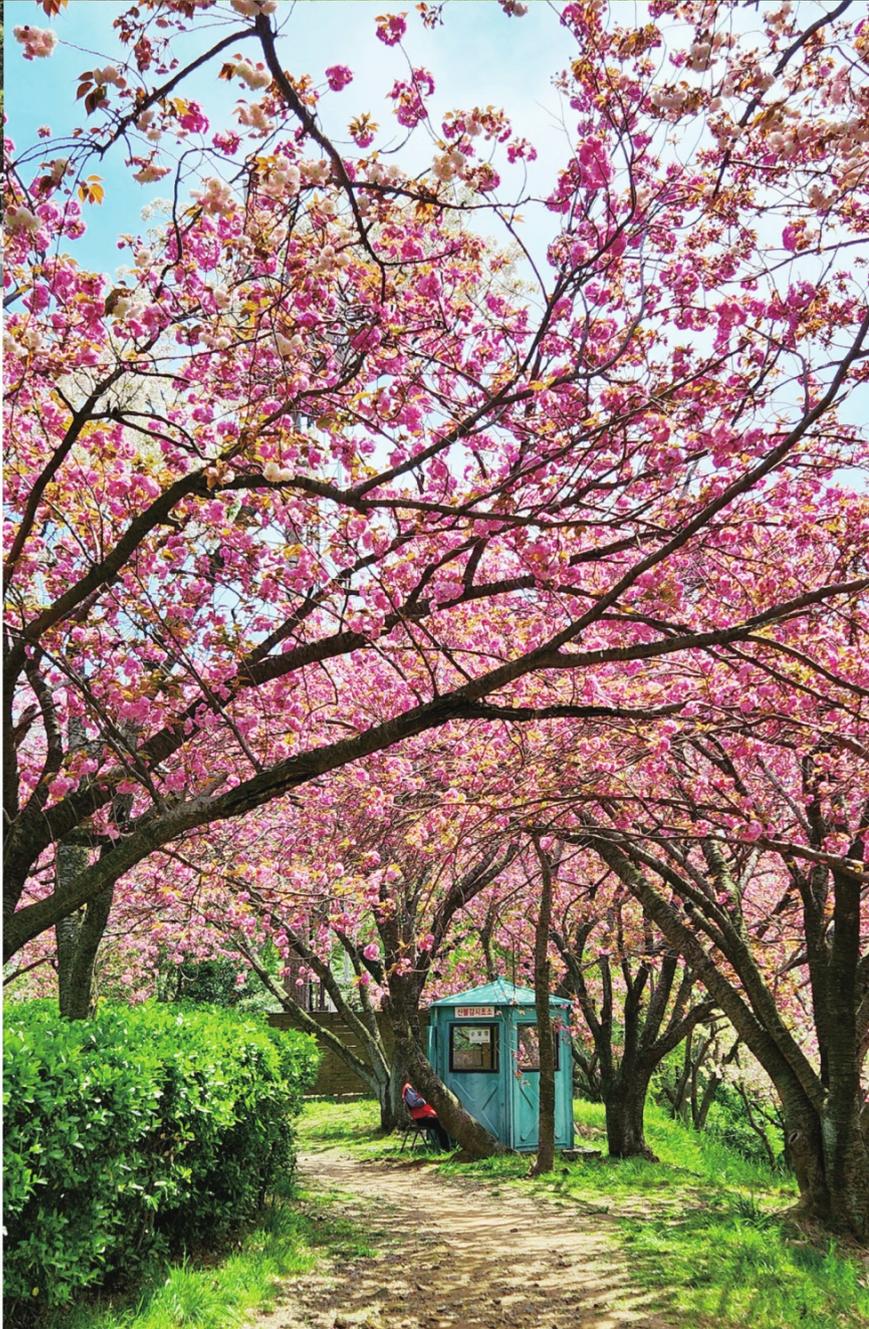
4·19광장에는 4·19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과 4월민주혁명희생자 영령봉안소가 있습니다. 위령탑은 자유당 시절 독재에 항거하다 숨진 4·19부산민주혁명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용두산공원 안에 건립하였다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2월 15일 중앙공원으로 이설하였습니다. 매년 4·19혁명 희생자 위령제와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① 중앙공원 안내도

※ 관람객자 편의시설 현황

- A: 충훈탑 경사형 엘리베이터
- B: 충훈탑 장애인용 화장실
- C: 광장 장애인용 화장실
- D: 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E: 광장 경사로 및 진입경사판
- F: 광복기념관 장애인, 노약자용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화장실



- ❶ 4.19광장
- ❷ 조각공원
- ❸ 대한해협전승비 인근 겹벚꽃 군락지

민주공원과 중앙공원은 인접해있어 직원 간 교류를 하기도 하고 대시민 활동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중앙공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지면에 펼쳐 보입니다. 특히 4월 초중순 피는 겹벚꽃 군락지 중 민주공원과 맞닿아 있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민주공원 홍보 담당인 제가 직접 찍은 겹벚꽃 '스팟'이니 다음 봄나들이에 참고하세요! 📸

제11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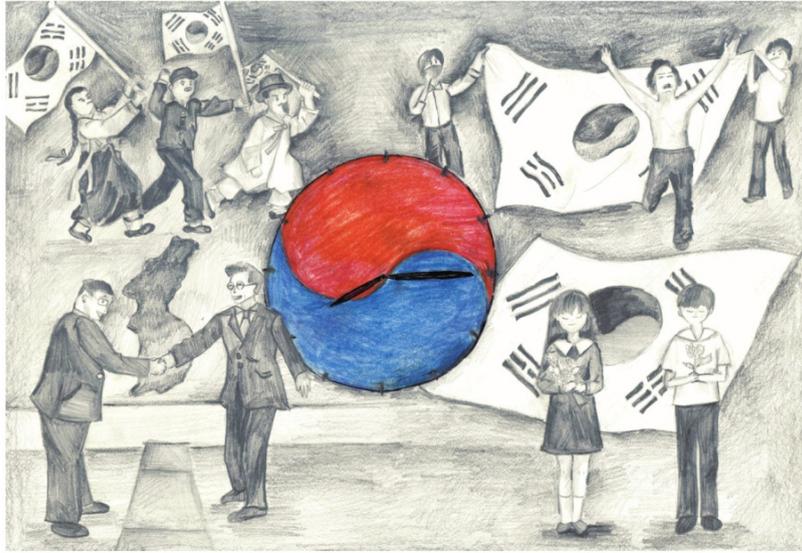
제11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시민의 삶, 부산민주공원과 함께하는 태극기 상상화를 주제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았고 전국 어린이 995명이 작품을 접수했습니다. 3월 16일(토)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주호)가 심사를 열어 주제의 적합성, 표현의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총 99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본 대회는 주어진 주제를 해석하고 상상하여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바탕으로 어린이 여러분의 상상을 그림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상적인 그림들이 많았습니다.”라며 “본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확장해 나가기 바랍니다.”라고 심사총평을 말했습니다.

99점의 수상작 중 대상 2점을 포함한 17점을 지면에 펼쳐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애국심과 민주주의의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여해 주신 995명의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99명의 수상자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수상작은 민주공원 유튜브채널에서 온라인 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



대상 대한민국국회의장상 박시진(매안초2) 맛있는 민주주의, 행복한 태극잔치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이예은(청주강서초6) 역사 속 히로애락을 함께한 자랑스러운 태극기



최우수상 부산광역시장상 김아진(인천공촌초4) 행복한 대한민국!



최우수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김지운(김해울산초5)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사입니다.



최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임도연(CMIS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4)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태극물결



최우수상 부산대학교총장상 광현서(서울송례초3) 대한민국 독립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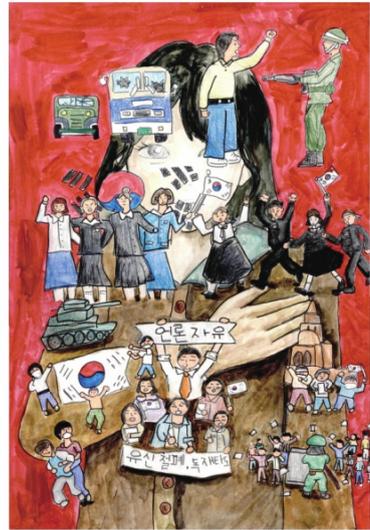
최우수상 국립부경대학교총장상 김은하(김해모산초2) 평화로운 대한민국



우수상 부산광역시중구청장상 김지아(정관초4) 평화와 태극기를 향한 마음



최우수상 부산지방보훈청장상 구민서((군포)능내초2) 대대손손 이어서 꽃피운 태극기



우수상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상 방희은(김해울산초5)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우수상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상 기율(구덕초6) 잊지 못할 역사의 시간



우수상 부산미술협회이사장상 박예린(개인)
3.1절이 있기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다.



우수상 KBS부산방송총국장상 김도경((부산)중리초1)
다 함께 태극기를 달아요



우수상 부산일보사장상 박진리((군포)수리초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하해요



특별상 부산민예총이사장상 백서율((부산)대교초6) 함께 손잡는 우리의 통일



우수상 국제신문대표이사상 이하준((경주)현곡초2)
평양에서 부산까지 달려요



특별상 KNN사장상 최서윤((진주)초전초1)
민주공원에서 유관순 언니와 행복한 시간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문병학 | 시인,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갑오년, 사람이 하늘이다(人乃天)는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 세상을 추구하고, 국권 수호를 위해 일제 침략에 결연히 맞섰던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이자 동아시아 반제 민족운동의 우뚝한 봉우리이다.

19세기 조선은 안팎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안으로는 소수 문벌(門閥)이 중앙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勢道政治)로 매관매직(賣官賣職), 삼정문란(三政紊亂) 등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국권 침탈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민족적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기층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았다. 이에 1862년(철종 13년) 경상도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이내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로 확산하였다. 이런 속에서 1863년 말 고종이 즉위하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등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도리어 악화일로(惡化一途)였다.

급기야 1894년 전라도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導火線)으로 작용한 고부농민봉기이다. 관아를 점령한 농민들의 항쟁이 장기화하자 조선정부는 조병갑을 거금도로 유배(流配) 보내고, 신임군수 박원명을 임명하여 회유하는 한편 안핵사(按覈使) 이용태를 파견하여 고부의 민가(民家)를 불태우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고부 인근의 무장현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활동하던 손화중 대접주와 대의를 논의, 마침내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茂長東學布告文)을 공포하고 혁명의 대장정에 올랐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다시 점령하고 백산으로 나아가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합류한 농민들과 만나 조직을 확대·개편한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른 것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蒼生)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盤石)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중략)라는 격문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전주성을 향해 진군하였다. 그러자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라감영군을 출동시켰고, 동학농민군은 정읍 황토현에서 이들을 크게 물리쳤다. 이 소식을 접한 조선정부는 양호초토사(兩湖掃討使) 홍계훈 지휘 하에 경군(京軍)을 급파하였고, 동학농민군은 부대를 우회하여 경군을 장성 황룡으로 유인하여 격파하였다.

전라감영군과 경군을 물리친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로 전주성(全州城)을 점령하였다. 당황한 조선정부는 긴급 대신회의를 열어 청나라에 파병(派兵)을 요청하였고, 일찍부터 대륙침략의 고두보로 삼고자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도 1885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조약 등을 빌미로 군대를 파견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 불멸, 바람길
 ◀ 기념공원 상징조형물, 죽창결의

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에게 전주성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학농민군은 노비문서 소각, 탐관오리 엄벌, 무명잡세 폐지 등의 개혁을 요구하여 화약(和約)을 맺고 5월 8일(양 6. 11.)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퇴각하자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철병(撤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고 6월 21일(양 7. 23.) 밤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한 후 고종을 인질로 삼아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 도발 등의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같은 일본군의 만행은 전국 각지의 반일 의병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의 상황을 살피던 동학농민군도 9월 10일(양 10. 8.) 전라도 삼례에서 반일항전에 돌입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충청감영 소재지 공주를 향해 진군하다가 우금티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를 맞아 수차례 걸쳐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크게 패배

하였다.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도 쓰러졌고, 이후 조선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사의 암흑기로 빠져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지역적인 민란으로, 동학비도(東學匪徒)들의 반란으로 축소·왜곡되었고, 해방된 후에도 바로잡히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문화예술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역사학계에서도 식민사학(植民史學) 극복의 필요성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런 흐름은 1970년대 반독재투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과거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였고, 여기에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맞물리면서 기념사업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성숙으로 1993년부터 전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들이 창립되었고, 1993년 12월에는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 복원과 의미의 대중화를 추구한 백주년 기념사업이 크게 성공하였다. 그 결실이 바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때로부터 110년 만에 제정된 특별법은 한 세기가 넘도록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졌던 역사를 극적으로 복원한 쾌거였다. 특히 특별법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한다.”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된 것은 기념사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기념재단이 설립 이후 획기적인 기념사업들이 추진되고 결실을 보았다. 4천여 명에 이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등록,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약 30만㎡ 부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185건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이 그것들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명제가 있다. 사건이 끝난 후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했던 동학농민혁명을 염두에 두면 이 명제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나아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굴절과 부침(浮沈)으로 거짓과 진실이 뒤바뀌는 바람에 축소·왜곡된 3·1운동, 제주4·3항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춰봐도 이 명제는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현대 민족민주 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상과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학농민운동기념재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승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법인으로 인가받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황토현 전적지에 조성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에 있는 상징조형물 ‘죽창 결의’는 스틸을 주 소재로 죽창이 모여 둥근 원형을 이루는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어린 죽순이 자라나 강한 대나무가 되는 것에 대비하여 순수한 농민들이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면서 강인한 전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불멸, 바람길’이라는 이름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은 가천대 조각과 임영선 교수의 작품으로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2022년 6월 25일 제막되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 무리를 대규모로 조각한 작품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1987년 10월 건립된 ‘전봉준 선생상’이 있었다.

이전에 있었던 전봉준 선생상의 작가는 조각가 김경승이었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로써 그동안 반일 민족항쟁인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동상을 친일작가가 조각한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다가 마침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 2021년 기준에 서 있는 전봉준 선생상을 철거하고 2022년 6월 같은 장소에 지금의 <불멸, 바람길>을 세웠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 ▶ 전북 김제시 금산면 봉황로 5

이 건물은 '동록개'라는 백정의 집이었는데, 동학농민군 측에 헌납하였다. 신분제 철폐라는 동학농민군의 이념에 깊이 공감한 동록개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금구·원평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덕명 대접주에게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자기 집을 헌납하였다.

원평집강소는 1882년에 4칸의 초가로 지어졌으며, 집강소로 활용된 이후에는 금산면사무소, 불법연구회(원불교) 교당, 개인 주택 등으로 사용되었다. 2014년에 문화재청은 원평집강소의 가치를 인정하여 긴급 매입하였고, 2015년 12월에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시기 원형으로 보수정비를 완료하였다.

1894년 여름,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합의하여 관민상화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동학농민군 집강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배대상이던 농민들이 최초로 통치권력을 행사한 기관이다.



▲ 원평집강소 표지석과 전경



▲ 충남 공주시 동학혁명군위령탑

공주 우금티전투지 ▶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431-45

1894년 11월 8~9일(양력 12월 4~5일)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 관군 연합부대와 수 차례 접전을 벌인 곳. 이곳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이 73년 11월 11일 건립되었다. 이 위령탑은 199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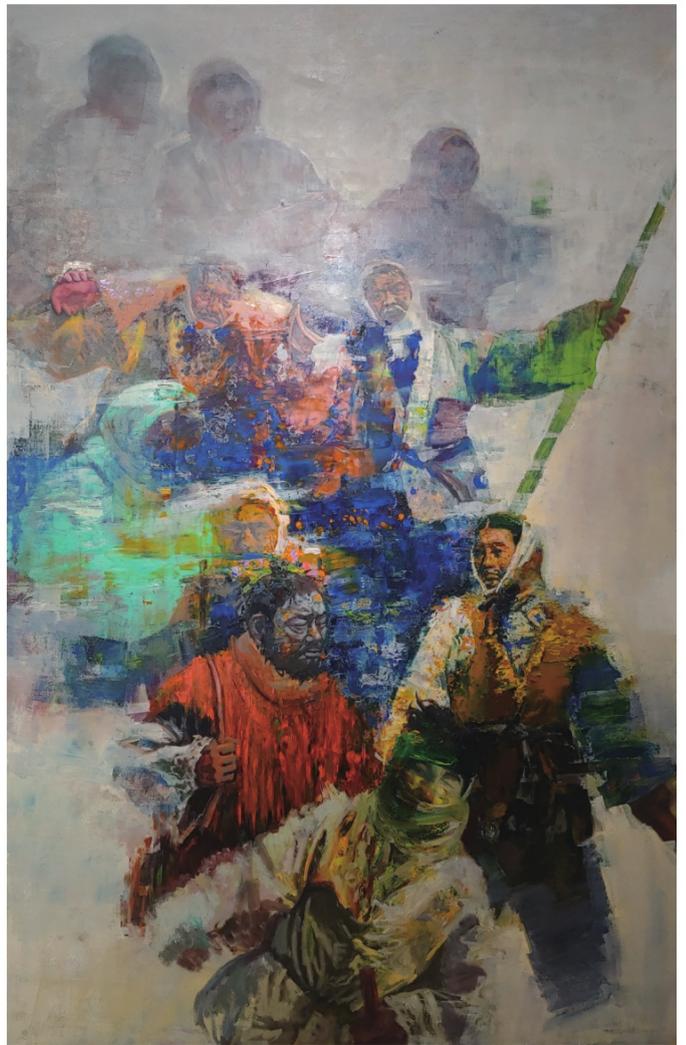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2024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은암미술관, 울산노동역사관198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함께 여는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부산 전시가 6월 8일(금)부터 7월 21일(일)까지 민주공원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국에 있는 민중미술 작가 17명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작을 선보입니다.



홍성담_시천주조화정_270×910cm_걸개그림_2022



김우성_꿈어울(夢灘)_120×250cm_캔버스에 유채_2024



정지영_한여름 밤의 꿈_336×163cm_캔버스에 혼합재료_2013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를 지향한 노력이 세계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지내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이번 전시는 역사적 서사를 예술로 전하며 소통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격렬하고 치열한 삶으로 민중의 의기를 모았던 예술적 기록물과 생태적 자유를 갖는 예술가의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적 삶을 표현하고 자유로운 감수성을 발휘하여 깨어있는 활동으로 사회인식에 대한 비판, 저항, 참여, 실천 등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예술전시로 시각화하여 사회적 역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힘을 대중과 나누며, 우리가 동행하는 이 시간이 새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화순 붉은 우물_390×160cm_캔버스에 유채_2024

20140416

세월호참사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 〈다시 피는 꽃으로 - 열 번째 봄〉

황중모 |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봄이면 천지사방을 꽃분홍으로 물들이며 해마다 다시 피는 봄꽃을 누리고자 전국은 사람으로 흘러넘칩니다. 봄꽃은 불과 보름 남짓 봄의 화려함을 뽐내고는 이내 떨어져 버림으로 그 화려함만큼이나 찰나와 같이 짧은 생을 마칩니다.

10년 전 4월도 그랬습니다. 전국의 봄꽃은 만개하고 사람은 바다처럼 넘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도 앞바다에서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우리 아이들이 떨어지는 봄꽃처럼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배를 버린 선장도, 무능한 해경도, 국민과 나라를 버린 대통령도 차가운 바다에서 아이들을 건져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304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난 콘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해경 등 당국의 구조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총 476명 중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2024년 4월 16일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부산민예총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부산시민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부산지역행사를 하기도 하고 부산민예총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기별 행사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광복로 시티스퀘어에 모여서 3일 밤낮으로 예술난장을 펼쳤던 것이 시초가 되어 올해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술인들은 '망연자실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랴도 해야만 한다.'라는 절박감으로 광복로에 모였고 노래와 몸짓, 시와 그림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무했습니다. 이후 차려진 분향소에서 추모시, 진혼무 등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지켰습니다.

올해 4월 13일 토요일 부산역에서 펼쳐진 '세월호참사 10주기 부산시민문화제 - 다시피는 꽃으로 열 번째 봄'은 그렇게 이어온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안전한 사회건설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사이고, 더 이상은 생때같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킨 시민문화제입니다. 부산지역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으로 공동주최하고, 세월호부산대책위와 (사)부산민예총이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크게 네 마당으로 구분해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퍼포먼스, 진혼무, 창작소리, 음악극, 진도북놀이로 구성된 예술마당이 펼쳐지고, 두 번째로 세월호참사 10주기 주제영상, 묵념, 부산작가회의 공동창작 시낭송, 세월호세대 청년들의 다짐, 시민사회발언, 세월호 가족 인사영상, 스물여덟 청년의 다짐 등으로 구성된 다짐마당 그리고 세 번째로 소리연대, 아이씨밴드, 좋은친구, 박종철합창단, 대합창으로 구성된 작은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마당으로 준비된 안전사회건설 약속나무 만들기와 대형 노란 리본 만들기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영상은 부산민예총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국가기관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이없게도 이태원참사라는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국회에서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9번째의 거부권이었죠.

대한민국은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이라는 국가권력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또한 이러한 삼권분립의 일환으로 입법권을 견제하는 행정수반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재정적 지원과 배상만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간 진행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원인에 대한 발표내용은 정확한 침몰원인은 모른다는 것이었고, 해경이 구조를 방기하였으나 왜 방기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은 확인되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한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관련자들은 해운사, 해운조합, 세월호 선원 등 국가기관이 아닌 관련자들만 처벌을 받고 있고 당시 구조의 책임이 있는 해경관련자들은 현장지휘관만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해경지휘부는 무죄를 받는 등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 관련자들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청와대 관련자들, 해수부 관련자들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과연 누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생명안전 기본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10년 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거리에서, 국회에서, 법원에서 싸움을 이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참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우리 이웃들을 잃어 왔습니다. 심지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무책임과 부주의, 이기심으로 인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단 한번도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참사의 책임을 엄히 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 없이 조속히 공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민예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전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예술로 행동할 것이고,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

사진 제공_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새해 첫 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 임직원 그리고 동계국가 근로장학생은 2024년을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낮기림마당에서 애국영령과 민주열사를 기리며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 후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방명록에 “민주영령! 임들의 뜻 이어받아 평화와 정의의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광호 부이사장은 “치열한 봄이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으며, 이동일 민주공원 신임관장은 갑오농민전쟁 130주년을 기리며 “보국안민의 기치 따라 자주평화통일,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호진 사무처장은 “민주열사·애국영령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다짐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이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와 김호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공원노동조합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간의 임금단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2024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

2024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를 2월 1일(목) 오후 7시부터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활동·사업평가(안)를 채택, 결산 승인, 감사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행봉 이사장, 이희길 부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신임이사 5명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고 2024년도 활동·사업계획(안)을 채택,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사업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회원 두 분인 박경연 회원과 박혜영 회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정기총회에 민주공원 소장 작품 큐레이션 전시를 곁들인 하룻밤 카페 공원 달아래를 열어 직원들이 준비한 다과와 신용철 학예실장의 작품 해설로 더욱 즐거운 정기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2024년 활동 기조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5년, 민주공원 25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자!”입니다. 활동 기조에 따라 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은 다채로운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회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24 민주열사 참배와 신년인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함께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월 12일(금) 오전 10시 2024 민주열사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민주공원 낮기림마당에서 참배 후 민주공원 작은방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 활동 및 결산보고, 2023년 감사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발표 후 2024년 신년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단체별로 인사를 하며 연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2024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시민사회 역량강화로 부산을 안전하고 공공성이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자!’를 기조로 기후 위기 고리2호기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공성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시민 중심의 시정 및 의정을 위한 감시,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가 함께합니다.

노동미술 민주공원 순회전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노동미술 민주공원 순회전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2024년 1월 6일(토)부터 1월 28일(일)까지 민주공원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노동미술전은 34명의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광주, 인천, 전남, 전북 등의 역대 가장 많은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울산노동역사관에서 전시를 한 후 민주공원에서 이어받아 펼쳤습니다. 노동미술 순회전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멈추고 현 시기 노동자가 가야 할 길을 예술의 시선으로 모색합니다. 절박한 노동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 숨겨진 희망을 끄집어냅니다. 다양한 형식과 소재, 전시장에 갇히지 않는 예술로 시대와 호흡하는 행동하는 예술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특히 노동자와 함께 작업한 작품은 예술가의 노동으로서의 예술과 노동자의 예술로서의 노동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노동미술2023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공원, (사)한국미술인협회울산지회, 울산노동역사관이 공동 주관하며 울산북구청, (사)울산민예총,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차지부가 후원합니다.



2024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힘찬 첫 발걸음

2월 17일(토) 2024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처음 만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민주공원을 소개하고 2024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들이 앞으로 할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나의 민주주의 지수를 알아보는 활동도 해보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초 상반기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민주공원과 함께할 자원활동가들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족자주의 등불 故 배다지 의장 시민사회장 영결식

민족자주의 등불 故 배다지 의장 시민사회장 영결식이 4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민주공원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영결식에서는 민중의례와 故 배다지 의장의 약력보고, 부산민예총 양일동 소리꾼의 추모소리, 문정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의 조사, 박영식 목사의 조가, 박철 시인의 추모시, 부산민예총 김경미 춤꾼의 진혼무, 가족인사와 장동표 산수이종물기념사업회 이사가 호상인사를 했습니다. 유족을 시작으로 영결식을 찾은 조문객이 차레로 헌화를 하며 영결식을 마무리했습니다. 故 배다지 의장은 “민족자주 단호쟁취!”라는 글을 유언으로 남기며 남은 이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뜻을 이어가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 때부터 큰 기둥 역할을 해주신 의장님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이달의 민중미술 작품
문자 발송(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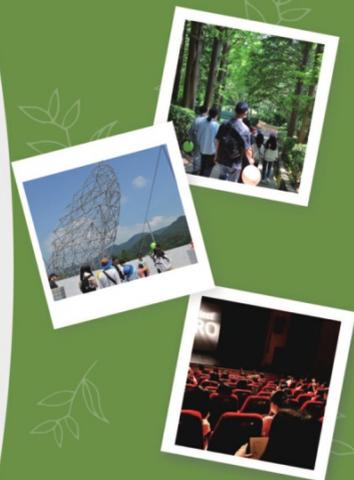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지난 1월 19일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과 결산을 평가하고 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소장, 부소장, 감사가 연임하는 임원선출안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사업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공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역량을 증진하는 일에도 특별한 열정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학술대회 기획단, 성찰과 전망 편집위원회, 사료평가위원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2024년도 우리 연구소 역량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 집행부가 노력하겠습니다.



6월민주항쟁 기념 학술심포지엄 준비

“시시대, 민주주의와 만날 준비”라는 주제로 6월 20일 13시부터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진행될 학술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줌 화상회의를 통해 학술대회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날 제시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획위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발제자와 발표자 섭외를 마쳤습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전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대상: 10세 이상 70대 미만
 기간: 2024년 5월 12일~11월 30일
 시간: 10:30/13:00/14:00/15:00
 장소: 민주항쟁기념관 1층 전시관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대상: 10세 이상 70대 미만
 기간: 2024년 5월 12일~11월 30일
 시간: 10:30/13:00/14:00/15:00
 장소: 민주항쟁기념관 1층 입구

민주공원 숲해설
 대상: 10세 이상 70대 미만
 기간: 2024년 5월 20일~8월 30일
 시간: 10:00/13:00/14:00/15:00
 장소: 민주공원 1호정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대상: 10세 이상 70대 미만
 기간: 2024년 5월 20일~11월 30일
 시간: 10:00/13:00/14:00/15:00
 장소: 민주공원 1호정

체험프로그램 신청안내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예약(demopark.or.kr)
 - 예약기간: 프로그램 희망일과 30일 전~5일 전
 - 민주항쟁기념관 휴관일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체험프로그램 1회당 25명 이내 신청 가능 (50 단체 신청일 경우, 담당자와 통화 필요)
 - 체험문의: 교육문화팀 051-790-7407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024 부산민주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 ~ 5일 전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펼쳐보임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 ◆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 공원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 ◆ 민주공원 숲해설
 -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 보고, 다양한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숲 체험
- ◆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
 -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 곳곳에 위치한 기념식수를 찾아보는 교육 프로그램

민주공원 반나절풍류

드로잉피크닉
 2024년 봄, 그리고 가을
 부산민주공원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대여물품 핸드카트, 테이블, 돛자리, 블루투스스피커, 컬러링페이퍼, 미술도구 등
대여비용 무료(물품 훼손 등의 경우 비용 청구)
운영기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휴관일 제외)
대여시간 10:00 ~ 16:00(자유롭게 수령하여 16:00까지 반납)
신청방법 30일 ~ 5일 전까지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문의처: 교육문화팀, 051-790-7407 | 14890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20 부산민주공원 | www.demopark.or.kr

2024 민주공원 반나절풍류

2024년 봄, 그리고 가을 부산민주공원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여물품 핸드카트, 테이블, 돛자리, 블루투스스피커, 컬러링페이퍼, 미술도구 등
- ◆ 대여비용 무료(물품 훼손 등의 경우 비용 청구)
- ◆ 운영기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휴관일 제외)
- ◆ 대여시간 10:00 ~ 16:00(자유롭게 수령하여 16:00까지 반납)
- ◆ 신청방법 30일 ~ 5일 전까지 부산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나는 놀이와 체험,
공원이 한 가득!

2024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2024년 5월 5일 일요일
부산민주공원 곳곳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체험부스는 오후 3시 30분에 마칩니다.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관 민주공원

포피스

부산어린이어깨동무

후원 BNK 부산은행

부산시실용단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전국고지함노동조합

Double Stage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람의연대

부산자부 사무처

“

민주공원에서 만드는 추억 속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계승해나가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